

스웨덴 SWEDEN



2018년 1월 설립된 스웨덴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 소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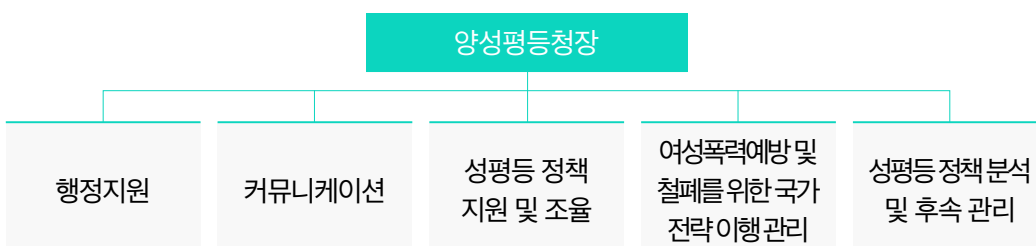
스웨덴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는 'Power, goals and agency-a feminist policy for a gender-equal future'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정책문서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2018년까지 정부기관 양성평등청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설립이었다.

그동안에는 대체로 스웨덴 내각에서 양성평등 정책 담당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과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내 양성평등 정책과Division for Gender Equality에서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한 양성평등연구Gender Equality Research Report "Objectives and authority" p. 86에서 당시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이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직(기구)*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가 양성평등청 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이행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전담하는 단독 기관인 양성평등청 설치 계획을 공표하였다. 그 결과, 2018년 1월 1일부로 양성평등청이 새로운 정부기관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 양성평등 정책 담당 장관은 기구가 아닌 내각 내 양성평등 정책만 전담하는 개인임. 따라서 양성평등부라 하지 않고, 영문명에도 Minister만 명시함.

양성평등청은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Göteborg에 위치해 있고, 약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체계는 양성평등청의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서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양성평등청 조직도




참고자료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Gender equality policy goals,"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visions/> (접속일자: 2018년 9월 19일)
- 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 (접속일자: 2018년 9월 19일)

출처

- 양성평등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jamstalldhetsmyndigheten.se/om-oss/organisation>

 양성평등청의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나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스웨덴 정부가 명시한 6가지 양성평등을 위한 하위목표^{sub-goals}에 대한 이행 및 후속 노력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6가지 하위목표는 i) 의사결정 및 영향력에서의 성평등, ii) 경제적 기회 및 독립성에서의 성평등, iii) 교육에서의 성평등, iv) 무임금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서의 성평등한 분배, v) 건강 및 돌봄에서의 성평등, vi) 여성대상 폭력 근절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지역당국 등이 양성평등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각 정책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율하고 원활히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양성평등 사업 및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분배 및 운영하는 업무를 관할한다.

다섯째, 양성평등 분야 국제협력에 있어 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정부를 지원한다.

 스웨덴 정부는 6가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별도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성 주류화 노력이 보다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청은 표적화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타깃을 설정하여 그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인데, 정부기관과 고등교육기관(예: 대학교)이 그 대상이다.

- 정부기관 대상 프로그램은 ‘Gender Mainstreaming in Government Agencies ^{GMGA}’ 으로, 약 58개의 정부 당국들이 각자 해당 분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서로 협력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포털사이트(www.jamstall.nu)가 구축되어 있으며, 정책 기획 및 추진에 활용할 전문 자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참여 당국들은 각 정책 이행 결과 및 경험 데이터를 올려 공유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관계자의 역량 강화, 기관간 경험 교환을 위한 포럼과 같은 논의의 장 기획, 정책사례 발굴 및 공유, 관계당국의 양성평등 추진 결과 수집 등을 진행한다.
- 대학 지원 프로그램은 ‘Gender Mainstreaming in Academia ^{GMA}’으로, 스웨덴 내 전 국립대학 및 일부 사립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 과정 및 업무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학 내 성불평등 문제 해결, 성인지적 고등교육 기관 운영이라는 목표 하에,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기관별 상황과 맥락에 맞춰진다. 양성평등청에서 대학 내 의사결정, 운영 및 예산 기획, 교직원 임용, 연구 및 교과과정 등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문, 타 기관의 경험 공유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들은 예텐보리 대학^{University of Gothenburg} 산하 설립되어 있던 젠더연구사무국^{National Secretariat for Gender Research}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나, 2018년 1월부터는 양성평등청이 설립되면서 양성평등청으로 이관되었고 2019년까지 추진된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기관인 만큼, 앞으로 양성평등청이 정부 당국들의 성평등 정책 이행 촉진 및 모니터링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매매 종사자 노조 설립 승인 반복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스페인 노동부에서 성매매종사자 노조(Organización de Trabajadoras Sexuales, OTRAS) 설립을 승인한 뒤 한 달 만에 이를 반복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알게 된 노동부 장관, 심지어 총리까지 나서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이라고 반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 할 계획이 없음을 뒤늦게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성매매 합법화 찬반 논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다.

2018년 8월 4일, 스페인 노동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 노조(OTRAS)가 단체설립의 자유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며 이에 따라 노조 설립을 공식 승인했음을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성매매 종사자 노조(OTRAS)는 성매매 업계에서 일하는 남성 및 여성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관보를 통해 알려지자,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 총리는 바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이를 취소할 것이며, “현 정부는 페미니스트 정부이고, 성매매 철폐를 지지하는 정부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집권한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페미니스트 관점을 갖고 사회에 잔존해 있는 다양한 여성 착취(exploitation) 문제들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임을 강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막달레나 발레리오(Magdalena Valerio) 노동부 장관은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기자들에게 자신의 부처 관료들이 성매매 종사자 노조를 승인해줬다는 점에 충격 받았으며, 본인은 승인허가를 준적이 없다고 밝혔다. 발레리오 장관은 “성매매 종사자 노조(OTRAS)가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을지 몰라도, 정부는 빈곤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돈을 받고 본인의 성을 판매하는, 근본적인 권리를 어기는 행위를 대변하는 노조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이사벨 첼라(Isabel Celaa) 정부 대변인은 스페인 변호사협회(Abogacia del Estado)의 말을 빌려 노동부 실무당국에서 노조 설립 승인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장 빠른 방안은 정부의 권한으로 등록을 철회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95년 제정된 형법(Criminal Code)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그와 연결된 여러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을 성매매 하도록 강압, 학대하는 경우(제 188조 1항)이다. 즉 성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공공장소에서 성매매를 한다거나, 인신매매와 같은 명백한 범죄가 아닌 경우 성매매는 용인(tolerated) 되고 있다.

정부가 바로 승인 취소 계획을 발표하자, 성매매 종사자 노조(OTRAS) 대표 콘차 보렐(Conxa Borrell)은 기자회견담회(press briefing)를 열고 노조 설립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성매매 종사자들도 스페인 사회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노동권을 갖길 희망하며, 오늘날 이들에게 처한 현실을 보면 고용계약서 작성, 병가 및 휴가 같은 권리는 '유토피아'와도 같이 머나먼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GOV. UK (2018)
“Everyone will benefit if men include more women in top roles”
2018년 9월 7일자
<https://www.gov.uk/government/news/everyone-will-benefit-if-men-include-more-women-in-top-roles>
(접속 일자: 2018년 9월 15일)
- Business Insider (2018)
“Sex workers' union ignites debate over prostitution in Spain,”
2018년 8월 31일자
<https://www.businessinsider.com/ap-sex-workers-union-ignites-debate-over-prostitution-in-spain-2018-8?international=true&r=US&IR=T>
(접속일자: 2018년 9월 10일)
- Deutsche Welle (2018)
“Spain to overturn registration of OTRAS sex workers' union,”
2018년 8월 31일자
<https://www.dw.com/en/spain-to-overturn-registration-of-otras-sex-workers-union/a-45308986>
(접속일자: 2018년 9월 10일)
- The Local (2018)
“Let us keep our union”: Spanish sex workers demand equal labour rights,”
2018년 9월 1일자
<https://www.thelocal.es/20180901/we-want-our-union-back-sex-workers-demand-equal-labour-rights>
(접속일자: 2018년 9월 10일)
- Transcrime (2005)
“National legislation on prostitution and the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European Parliament's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p. 36,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05/360488/IPOL-JOIN_ET\(2005\)36048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etudes/join/2005/360488/IPOL-JOIN_ET(2005)360488_EN.pdf)
(접속일자: 2018년 9월 10일)

- 노동부 실무급에서 성매매 종사자 노조 설립을 승인한 직후 이를 바로 정부 측에서 나서 철회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절차상 승인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적 또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성매매 업계 자체에 대한 합법화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GERMANY



여성운동사 온라인 아카이브 첫 오픈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2018년 9월 13일, 독일 여성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아카이브 'Digital German Women's Archive'이하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 : DDF'가 문을 열었다. 독일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DDF'는 독일 여성 운동 역사를 주되게 다루고 있는 전문 포털사이트로, 전문기관에 의해 선정된 독일 여성 운동사 자료를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됐다. 아카이브 자료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 약 40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레즈비언 아카이브 도서관 및 문서센터 i.d.a.Dachverband, 이하 i.d.a.센터' 문서를 디지털화한 결과물이다. i.d.a.센터는 198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 및 레즈비언 운동사 연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아카이브 자료는 '직업과 경제', '교육과 학문', '권력', '문화', '예술 및 미디어', '몸과 섹슈얼리티', '정치, 법 및 사회' 등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으며, 독일 여성 운동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www.digitales-deutsches-frauenarchiv.de)'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볼 수 있다.
- 검색기능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나 인물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료 형태는 단행본, 저널, 편지, 사진, 녹음물 등 다양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의 삶과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에세이와 '19세기와 20세기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가능성', '함부르크 대학의 여성 연구와 여성학의 시작', '여성들의 정원' 등 다양한 여성 이슈와 조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또한 독일 여성 운동사에서 어떤 여성들이 조직을 설립하고, 어떻게 시위를 조직해왔고, 어떤 글을 썼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성평등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여성들의 개인사와 활동사, 실패와 성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지도를 통해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 여성 조직과 협회, 관련 비영리단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DDF'는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후원한다. 아카이브에 대한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것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열린 '독일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행사 자리이다. 이날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100년 전 독일은 여성 참정권을 얻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있다."며 '디지털 독일 여성 아카이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들에게 영감을 얻어 우리의 과제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www.100-jahre-frauenwahlrecht.de
- www.digitales-deutsches-frauenarchiv.de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